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요즘은 흔하게 돌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여전히 자기돌봄이라는 표현은 낯설다. 돌봄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이고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자기돌봄이라고 해서 여느 돌봄과 다르지 않다. 사실 돌봄 중에서도 자기돌봄은 가장 근본적인 돌봄이다. 누군가를 위한 배려와 보살핌이 돌봄이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기돌봄이다. 그리고 안개에 갇힌 듯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차분히 쉼겨야 할 것이 곧 자기돌봄의 태도이다. 살아가는 동안 돌봄이 필요 없거나 이미 충분한 사람은 없다. 좋은 삶은 돌봄과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중 자기돌봄은 자신을 향한, 자신에 대한,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가장 필요하고 궁극적인 돌봄이다.

간질이 필요 없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돌본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이 자기 돌봄의 행위다. 자신이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곧 돌봄이다. 그런데 이런 자기돌봄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자기돌봄의 지극한 책무에 대하여

비하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친 자기 챙기기를 자기돌봄으로 여기는 탓이다. 잘못된 자기 배려는 자신을 아주 특별하고 우월하게 여기거나 과도한 인정욕구에서 나오기 쉽다. 특히 자신의 지식과 교양, 지위의 우월함을 뽐내기 위한 사람일수록 무례한 인정욕구를 자기돌봄으로 혼동한다. 하지만 자기돌봄은 오히려 겸손한 인정욕구와 자기 기만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는 것이다. 이런 본래 의미에 맞게 자신을 챙기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매일 목격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돌봄의 실천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 자기돌봄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태도와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술수나 기술로써 행동하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를 왜곡하거나 위선으로 포장하거나 거짓으로 지어내는 것은 해로운 음식으로 자신을 돌보면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다. 자신을 위한 돌봄이 스스로를 해하는 것이라면, 결코 돌봄이 아니다. 돌봄을 행하는 주체가 곧 '나'이며 돌봄을 받는 대상도 '나'이기 때문에, 자기돌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하며 배려하는 가장 선한 행위이자 최고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자기돌봄은 맹목적인 자기 챙기기와 전혀 다르다.

이러한 자기돌봄의 삶을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기 돌봄을 삶의 과업으로 삼고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책무로 생각했다. 여기에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의한 창조물이자

결과물이라는 매우 실존적인 시선이 함께 한다. 이런 자기돌봄의 의미를 철학자 미셸 푸코는 특별히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와 연결한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철학적 의미가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한 실천적 행위의 의미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유일한 일은 여러분이 젊었던 늙었던 자신의 영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영혼을 돌보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돌봄의 대상이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자기돌봄의 현실은 한순간의 안위와 부질없는 비루함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일갈은 퇴색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진실하게 돌봄으로써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옳은 길을 향해 노력하라고 요정한다. 자신을 스스로 중하게 여기며 성장을 위한 배려와 돌봄을 행하는 것은 좋은 삶의 근본 조건이다. 상황에 휩쓸려서 자신을 부정하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자기 돌보기의 거부다. 비싼 음식과 고가의 옷과 이득이 되는 관계는 탐하지만 귀한 생각과 품위 있는 태도와 진솔한 용기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자기돌봄은 가치 있는 자기실현을 위한 책무이며, 자신을 진실로 대하는 용기와 행동이다. 그리고 이 자기돌봄은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은 태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을 중하게 대하는 상호윤리이자 상식이다. 이상식과 책무의 윤리를 회복해야 할 때다.

社說

판 커진 영광·곡성 재선거 유권자는 즐겁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지역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영광군과 곡성군 등 호남 두 곳과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데 영광은 야 3당 대표가 직접 내려와 선거를 진두지휘할 정도로 뜨겁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일만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모두 영광에 집결해 자당 후보들의 장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첫 주말과 휴일인 5일과 6일에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삼일선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전 대표 등이 지원 유세를 펼쳤다. 반면 조국 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영광을 지키며 모든 화력을 집중했다.

영광군수를 뽑는데 야 3당 대표가 현장 지원 유세를 펼치는 것을 두고 '대선급'으로 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때

마다 민주당 후보 외에 마땅히 짝을 후보가 없었던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 하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현금성 공약이 넘쳐난다. 지역 현안 정책보다 정권교체나 기본소득 등 총선급 공약이 등장하고 있지만 오랜만에 다양한 선택지를 받아 든 유권자들은 싫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야 3당이 영광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호남에서의 주도권 다툼 때문이다. 민주당은 텃밭 수호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호남에 교두보를 확보할 경우 제2 야당으로서의 위상을 키울 수 있다. 다만 과열로 인한 흑색선전은 경계해야 한다. 다행히 영광에서 고발전을 펼치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고발을 취하한 것은 높이 살만 하다. 비전과 정책 제시로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상호 비방은 자제하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길 바란다.

교통약자의 발 마을버스 끊겨서는 안된다

광주지역에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북구와 남구·광산구 지역을 오가는 마을버스들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연료비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지만 운임으로 벌이는 돈은 그대로여서 운영 적자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버스의 원래 목적은 지형적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나 이용자가 수가 적어 대형차보다 중·소형차 운행이 적합한 곳을 다니는 것이다. 즉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을 실어서 번화가로 이동시켜주거나 지하철 도는 터미널, 시내버스 노선에 연결해주는 것이 주기능이다.

마을버스 운영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이중 역할을 하는 셈이다. 광주시 전체로 보면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높여 줌과 동시에 지하철 효율까지 올리는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 마을버스는 업체는 나라교통,

나라버스, 광남운수, 석봉운수, 광산버스 등 5개사이다. 이들은 주로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비수요 노선을 맡은 탓에 수입이 일정하다. 마을버스 매출액은 지난 2021년 54억 5100만원에서 2023년 55억 1300만원으로 대동소이하다.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는 2021년 10억 6900만원에서 2023년 17억 51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대표가 직접 운전하고 있지만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는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아 마을버스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특히 광주시와 북구, 남구는 2022년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광산구만은 아직도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 교통약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최소한의 지원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녀석이 또 나오지를 않는다. 어느 때 같으면 쪼르릉 달려 나와 열심히 꼬리를 흔들며 주유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기척이 없다. 큰 소리로 불러 봐도 돌아오는 건 빈 소리뿐이다. 아침에 자꾸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심상치 않다 싶더니 진짜 탈이라도 난 건가? 덜컥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혹시? 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침대 밑을 들여다본다. 다행히 녀석이 그곳에 있다. 잔뜩 웅크린 채 나를 쳐다본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이다. 나는 손을 뻗어 녀석을 쓰다듬는다. 녀석은 잠자코 있으려나 내 손길을 썩 달가워하는 것은 아닌 듯싶다.

응, 그래 알았어. 귀찮게 안 할게. 근데 또 어디가 아픈 거야, 응?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 수 없으니 안고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썩 나아졌으면 싶은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녀석은 한사코 몸을 빼려는 눈치다. 사실 나도 무섭고 두렵다. 녀석이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때 문일 것이다.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 오히려 그제 낫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나도 믿는 구석이 있기는 하다. 저렇게 외진 데로 몸을 피해 얼마쯤 웅크리고 있으면

구석의 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생생해지곤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적어도 내일 아침이면 틀림없이 꼬리 살살 흔들며 밥그릇 앞에서 있을 것이다.

침대 밑은 녀석의 은신처다. 몸이 아플 때, 혹은 너무 지쳤다 싶을 때면 으레 찾아가 숨어 있는 장소다. 누구의 눈길도 손길도 마다한 채 오로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처음엔 왜 구석으로 들어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어둠보다 밝음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숨어 들어가는 녀석을 자주 방해했다. 몇 번을 거듭한 후에 알게 된 것은 누구나 그렇듯 녀석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용히 쉬고 싶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몸이 아플 때조차 굳이 혼자있기를 고집하는지 그것만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아플 때는 누군가 이마에 손이라도 얹어 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지 않던가 말이다.

녀석은 혼자 아프고, 혼자 견디고, 그리고 혼자 일어났다. 누구에게 의존하고 짜증 부리고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 게 더 안쓰러웠다. 구석으로 들어간 녀석은 웅크려 다시 회복되어 나오곤 했다. 한나절, 하루, 길게는 이틀도 넘으면 적이 있지만 병원으로 가기 전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내가 할 일은 그의 시간을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싸움에 지친 소가 기운을 차리기 위해 자신만의 '웨스턴'을 찾듯이 녀석도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었다. 투우사가 숨 고르는 소를 공격하지 않듯이 녀석도 어서 괜찮아지기를 빌어보는 것이었다.

구석은 은신처이자 회복의 장소다. 세상의 위협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감과 안전, 편안함을 얻고자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곳이다. 저 녀석만 아니라 여타의 생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몸이 아프거나 공포심이 일거나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의 장애를 느낄 때면 누구나 구석으로 기어든다. 구석은 소외되고 어둡고 초라한 곳이지만, 또한 은밀하고 안온하며 위안과 휴식이 있는 곳이다. 소외와 불안, 집거와 유배 같은 때밀린 자의 거소인 반면에 희망과 용기, 재생과 활력을 되찾는 전복의 장소라는 것을 녀석도 알고 있는 것일 것이다.

오늘은 나도 잔뜩 상처를 입고 돌아온 참이다. 세상 전지치나 나 혼자 남겨진 듯, 모든 걸 탈탈 털린 듯 여찌 할 바를 모른 채 어둠해져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구석의 구석 내방 책상에 앉아 '불명'도 아니고 '물명'도 아니고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으니, '살다'와 '견디다'가 같은 말처럼 느껴진다. 외롭고 슬픈 날도 견디고, 두렵고 불안한 날도 견디고, 길을 잃고 헤매는 날도 견디고, 견디고 견디는 게 삶인 것만 같다. 겨울을 견디니 봄이 오고, 여름을 견디니 가을이 오지 않느냐고.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고, 그 또한 지나간다고 우적자잡이라도 해야 하는가. 떠밀려온 잔해 처럼 뒤엉켜 있는 밤.

문득 등 뒤로 기척이 느껴진다. 언제 왔는지 녀석이 나를 바라보고 서 있다. 까맣고 동그란 눈이 유독 반짝인다. 구석을 나와 구석을 내다보고 서 있는 저 작은 것, 저 쪼그란 강아지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덥석 껴안고 구석을 나간다.

기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호원 회장

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산업육성을 통해 국토를 발전시켜 왔다. 1970년대 포항 철강산업을 필두로 경남-북의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경제 발전을 선도했고, 이후 전남 석유화학과 대구 섬유산업, 그리고 구미와 경기의 가전, 반도체산업 순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고 있다.

과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경제성장 관점에서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 현재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등 인프라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역 경제 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 함께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사이에 광주-전남 인구 10만 명이 줄었고, 매년 1만여 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진출하면서 지역 경제력과 생산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지역 경제계 관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2023년 기준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5.9기가와트(GW)로 전국 1위이며, 발전량은 7500기가와트시(GWh)로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한 해 동안 생산된 발전량은 전남 전력 소비량의 1.7배에 달한다.

이러한 사유로 정부는 2036년까지 호남의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서해안 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깔아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송전선은 신해남-서인천 구간이 430km로 사업비가 4.7조원이며, 새만금-영흥 구간이 190km에 걸쳐 3.2조원에 달한다. 총비용은 7.9조원이며 수송 능력은 8GW에 해당되어 수도권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도권 공급, 즉 장거리 전력이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지는 의의 필요하다. 먼저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송전선, 변전소 등 다양한 전력 설비 구축과 이에 따른 많은 유지비용이 필요하고, 전력망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예측이 어려워 연결

되는 전력 계통의 부작용이 있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기술발전 속도가 늦은 점도 위계 요인이다. 마지막은 전력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2019년부터 5년간 송배전 평균 손실률은 3.54%이며, 손실량은 1만9373GWh로 연간 손실 금액은 약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장거리 전력 이송은 비효율적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 장거리 전력 송전 계획을 중단하고, 약 9.6조 원에 해당하는 송배전 건설비와 연간 손실액을 지역경제 발전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전남의 우수한 발전력과 9.6조 원이 결합하여 지원되면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자동차공장, 데이터센터 유치뿐만 아니라 광주글로벌모터스(7000억원) 규모의 공장 15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낙후된 공장을 전환형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하면 근로자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은 전환형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공장 증가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인과 행정가의 발 빠른 대책 마련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경영인 또한 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모든 주체의 협력을 당부한다.

無等鼓

최근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불이 나 공간과 요사채(행원당)가 전소됐다. 다행히 불이 인근 대웅전까지 번지지 않았으나 목조문화유산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일단 불이 붙으면 모두 태우고 나서야 꺼지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통일신라 말 철감선사(798-868)가 창건한 증심사는 1597년 정유재란, 1951년 한국전쟁 등 줄잡아 세 차례에 걸쳐 큰 불이나 원형을 잃었다. 행원당은 소실돼 1989년 복원한 공간인데 이번에도 화재에 휩싸였다.

철감선사가 창건한 화마와 목조유산

철감선사 대웅전(보물 163)도 1984년 화재로 전소됐다. 연등에서 옮겨붙은 불이 대웅전을 집어 삼켰다. 쌍봉사 대웅전은 복원됐으나 원형을 잃는 바람에 보물에서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2009년에는 여수 향일암에서 불이 대웅전, 종각 등 사찰 건물 8동 가운데 3동이 전소돼 큰 충격을 줬다. 목조문화유산 화재는 건물을 잃는데 그치지 않는다. 사찰의 경우 불상과 명화 등을 모시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필연적으로 추가 피해를 동반한다. 한 연구 논문 따르면 중요 목조국가유산 경내에 3

~5건 가량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은 37곳, 2개 이하는 19곳이었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는 50건 이상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에 불이 나면 견줄 수 없는 재앙이다. 2005년 낙산사에 불이 나 전각까지 번지는 바람에 동종(보물 479호)이 완전히 녹아내린 게 대표적이다. 낙산사 동종은 복원됐으나 고유석과 역사성을 잃어 보물에서 해제됐다.

우리 목조유산 화재 방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보물 등 목조 국가 문화유산 가운데 9건은 소화기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화전이나 방수 등 소화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목조 문화유산은 40건이었고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와 같은 경보 설비가 아예 없는 문화유산은 51건에 달했다. 목조문화유산 화재 예방대책은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단골 현안이다. 제발 내년에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洵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